



흑한기의 송아지 관리 위한 축산 기자재

송아지에게는 대개 섭씨10-16도의 온도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으로 그보다 낮은 온도와 차가운 바람은 추위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다.

위스콘신대 교수 제니 워렌의 연구에 의하면 섭씨7-10도의 추운 온도 환경에서 송아지는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신진 대사량을 늘리게 되며, 여기에 물기나 추운 바람이 더해지면 신진대사로 소비하는 열량은 더욱 높아지게 되므로 추가 열량섭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갓난 송아지는 어느 정도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갈색 지방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추운 날씨에는 송아지가 계속적으로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 축적된 모든 지방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송아지가 추운 겨울을 잘 이길수 있도록 반드시 고려할 사항은 유전적으로 건강한 소인가, 사육 환경 온도가 섭씨10~16의 적정 온도인가, 바람은 막아주고 있는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있는가, 초유는 반드시 먹였는가, 환기는 잘되고 있는가, 주위 환경이 청결한가, 깔짚 등이 충분한가, 운동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인가, 송아지 털이 젖어 있지 않는가, 병든 소와 격리되어 전염성이 없는가 등이다.

악천후 환경에서는 아주 조그만 보호 장치도 송아지에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 송아지 방

송아지 방은 독립식 방으로 추운 겨울에 외부의 찬 온도와 바람을 막아 주며 여름에는 뜨거운 외부 온도 (햇볕)을 막아 주어 시원하게 한다. 또한 독립방이므로 호흡기 질환등 병균의 전염을 막아 준다.

송아지 방을 선택 할 때 유의할 점은 크기는 (여러 학자의 연구 결과) 가로 2.2m, 세로 1.2m, 높이 1.4m 정도의 크기가 좋다. 특히 길이는 2.2m 이상이 되어야 온도 조절 효과가 있다. 제품은 외부 온도를 완전히 차단 (겨울 - 찬 바람, 여름 - 뜨거운 햇볕) 하는 비전도체이어야 하며, 원재료는 어미 소가 밭로 차더라도 깨어지거나 찢어 지지 아니하는 고분자 폴리에틸렌 제품이 좋으며 (내구년한 보통 30년 이상) 환기창과 밥통, 물통, 포유통이 있어야 한다.

송아지는 어렸을 때부터 적절한 운동을 하여야 다리가 건강하게 되어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송아지 방 크기로는 적절한 운동을 하기에는 좁은 공간이므로 울타리를 설치하여 주는 것이 좋다. 크기는 가로 1.9m, 세로 1.2m, 높이 1.1m 정도가 좋다.

2. 송아지 자켓

외부 온도로 인한 저체온 송아지는 문제가 심각하므로 겨울의 찬 바람과 추운 온도에서 열을 빼앗기지 않고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송아지 자켓을 입혀 주는 것은 아주 좋은 보호 방법중의 하나이다.

송아지 자켓을 선택할 때 유의할 점은 우선 자켓 외부의 천이 방수인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송아지방 내에 오줌 등으로 깔짚이 젖어 있으면 방수 안된 자켓을 통해 송아지 털이 젖게 되기 때문이다. 내부는 솜등을 넣어 누벼야 따뜻하고 내구성이 크다. 한번 입었던 송아지 자켓을 다른 송아지에 입힐 때에는 반드시 세척과 소독을 한 후 입혀야 하며 물 세탁 가능 제품이어야 한다. 물론 탈, 부착이 간단하도록 브라켓이나 접착식 붙임 밴드(찍찍이)가 있는 것이 좋다.

3. 보온등

송아지 방이나 송아지 자켓으로 송아지를 보호하였다 하더라도 아주 추운 날씨에는 보온등으로 따뜻하게 하여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

주위 온도를 올려주는 보온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백열등은 주로 빛을 고려한 제품으로 할로젠등에 비하여 1/3의 짧은 수명과 낮은 에너지 효율을 갖고 있다. 적외선등은 일반 백열등에 비하여 파장이 길어 피부에 침투력이 강하고 열 작용이 크다. 부가적으로 적외선등은 동물의 피부에 깊숙이 침투하여 세균 파괴, 모세 혈관 확장 및 혈액 순환과 세포 조직 생성에 도움을 주어 신진 대사를 촉진하므로 추운 겨울의 송아지 관리에 더욱 효과적이다.

【신일축산 제공】